



미 폐암사망률, 흡연 영향 계속 증가

암의 초기 진단 및 치료법의 발전으로 암환자들의 생존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지만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최신호에서 미암협회의 통계를 인용,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각종 암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1년 인구 10만명당 33.1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폐암의 원인은 80% 이상이 흡연에서 출발하므로 예방조치도 금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흡연 외에 폐암의 다른 요인들은 폐결핵, 비소, 석면, 방사능, 공기오염, 간접흡연 등에 대한 노출 등이다.

심박동 불규칙 때 줄종 사망 위험 2배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줄종으로 사망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학연구원들은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국제 줄종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주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 조사한 결과 그같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 78년 심방세동이라 불리는 그 같은 부정박동이 65세 이상 노령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인들중 하나라는 잠정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 연구원들은 다량의 아스피린 복용이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환자들의 줄종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5만명이 줄종으로 사

망한다.

남극얼음, 지구 온난화로 녹아 내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있다고 영국 과학자들이 말했다. 영국 남극조사단의 데이비드 보한을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남극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두꺼운 빙봉들 가운데서 최소한 5개가 지난 50년동안 상당히 녹아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잡지 '네이처'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남극반도 양쪽 해안의 빙봉이 모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1년 전에는 라르슨 빙봉에서 1천3백㎢에 이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닷속으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남극의 기온이 꾸준히 높아지

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남극반도 서해안의 기상기록들을 보면 계속 따뜻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페러데이 기지의 경우 지난 45년 이후 매년 섭씨 0.056도씩 높아져 지금까지 2.5도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우리는 빙봉의 크기가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민감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다만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자연순환의 일환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개 온난화가 남극반도 빙상에 어떻게 해서 그같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는 정확한 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수십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㉔